

대구주보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용서와 화해의 해, 냉담 교우 회두와 선교에 힘쓰시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 2019. 4. 14.(다해) 제2155호



사진 / 양병주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에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루카 19,38)



호산나(Hosanna)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건너가는 파스카 신비가 절정을 이루는 성주간이 시작되는 주님 수난 성지주일입니다. 오늘 전례를 통해 우리는 두 개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미사 전 '주님의 예루살렘 입

성 기념식때, 또 하나는 미사 중 '수난복음'입니다. 이 두 복음은 분위기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호산나"를 외치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옷을 벗어 길에 깔기도 하고 환호하던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저주와 광란의 분위기로 반전되며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돌변하는 인간의 처사가 너무나 '우매하다'라는 생각을 쉽게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정치적, 현실적으로 해방시켜 줄 분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 친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이를 통해 영원한 삶에 인도해 주시고자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신 분이십니다. 크고 힘센 군마(軍馬)를 타신 것도 아니고 작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참 평화'를 암시해 주시고 또 하느님의 구원계획을 기억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속담처럼, 겉옷과 올리브 빨마 가지를 길에 깔아놓고 흔들며 "호산나(구원해 주옵소서)"를 외치며 환호하던 사람들이 그리 쉽게 구세주를 십자가의 죄인으로 몰아가는 인정 없고 폭력적인 무리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수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에 일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과거사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은둔 서른 낮에 스승을 팔아넘긴 제자(마태 26,15) ; 밀고, 배신, 청부살인, 인간이 사는 곳에 늘 함께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마태 26,35) ; 신앙 때문에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생긴다면 언제나 등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속내를 보는 것은 아닌지?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마태 27,22) ; 깊은 철학, 신앙의 진리, 정의와 양심을 뒤로하고 구호에 따라 덩달아 춤추는 군중들의 모습은 우리와 무관하다 할 것인가? 때로는 어떤 이의 참된 모습을 잘 모르면서도 선입견이나 남의 말에 단죄해 버리기 일췌인 우리들의 삶 말입니다.

-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마태 27,24) ;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도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너희가 알아서 처리 하여라."하며 십자가에 매달게 내버려 두는 작태는 과연 오늘날에는 없다 할 수 있겠는가?

진실 왜곡과 양심부재는 - "내 양심은 내 생애 어떤 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욥 27,6)라고 말할 수 있는지 공정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도 "호산나(구원해 주옵소서)"를 외치고 있으며, 회개와 나눔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천과 결실 없는 빈 말에만 그친다면 '예수 사건(Christ-event)'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며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빨마 가지를 손에 들고 구세주를 환영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인류의 죄악을 속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심을 깨닫도록 합시다. 또한 이 성주간에 얼룩진 영혼의 허물들을 벗고, 작은 결점들을 고치고 회개하여 주님의 사랑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궤멸**

이상락 바오로 신부 | 신앙본당 주임

스마트폰과 맛집?!

스마트폰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사회적 현상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워든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다는 것이다. 특히 맛집 같은 곳에 가면 음식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스마트폰부터 들이댄다. 그런 별난 행동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걸까 생각하게 했다.

선교사로서 뉴질랜드에 파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신부님이 내게 하신 질문이 떠올라 그 이유를 찾게 되었다. 그 신부님도 선교를 하시는 분이신지라 내가 평신도 선교사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식사에 초대하셨다. 우리 선교회에 대해 궁금해하셨고 그러한 활동에 많은 격려도 해주셨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왜 선교를 하세요?”하고 신부님께서 물으셨다. 초짜 선교사인 나에게서 열정은 보았지만 근본적인 무언가를 알게 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었다. 뜻밖의 질문에 잠시 당황스러웠지만 “성경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교회의 사명이기에 세례 받은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나는 ICPE선교회라는 곳에서 펼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신부님께서는 씩 웃으면서 “그게 정말 선교사님이 하느님을 전하는 이유의 전부입니까?”하고 말씀하셨다.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나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삶을 투신해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자부심 아닌 자부심으로 들떠(?)있었는데... 신부님의 그 질문 한 마디에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느님을 전한다고 거들먹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답을 하지 못해 찢찢매고 있는 내게 신부님은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다.

“선교사님이 하느님을 전하는 이유는 좋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지요!” 큰 깨달음이었다. 내가 부모님도 반대하고 신부님들도 반대하던 평신도 선교사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체험한 하느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하고 싶어서이지 명예나 삶에 대한 보장이 주어져서가 아니었다.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알았다거나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내가 체험한 하느님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었고, 왜? 라는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기에 너무 좋고 행복해서 사람들에게 그 하느님을 전해주고 싶어서였던 것이다. 그 체험이 나를 기쁘게 하여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정체성도 갖게 되었고 또 그 정체성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고 행복한 것이었다.

어쩌면, 사람들이 맛집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도 자기가 체험한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하느님을 닮아 좋은 것을 나누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관심이 없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주저하는 이유는 아직 좋으신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곳, 즉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 땅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지요. 자유가 없는 존재는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을 하라고 나누어 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정반대의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를 신으로 삼고 우상을 만들고 이기심을 추구하면서 도리어 하느님을 적대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지 않을뿐더러 그것을 실행하려는 이들마저 가로막는 악한 의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마태 23,13)

하지만 선한 이들은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때로는 뱀처럼 영리하게 언제나 그 실행방법을 찾아내고 다시금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교사상과 적대감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가운데 최고봉은 물론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가장 완전하게 실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런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땅에 속한 모든 이로부터의 ‘미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 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르 13,13)

이번 한 주간, 아버지의 뜻을 듣기만 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기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저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소서.

당신께 바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저를 당신께 가까이 가게 하는
모든 것을 주소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저를 당신께 온전히 바치도록
저 자신을 버리게 하소서.

아멘.

성 니콜라오 데 플뤼에(St. Nicholas de Flue, 1417~1487) : 은수자, 스위스의 수호성인

지혜의 숲

사 치

어느 날 제자들이 스승의 문하생이 되기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한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옷이 두 벌 밖에 없는데, 한 벌을 팔아서 그 돈으로 꽃을 사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의 전례

| | | | | | |
|---------|---|---------|-----------|-----|----------------|
| 제 1 독 서 | 이사 50,4-7 | 제 2 독 서 | 필리 2,6-11 | 복 음 | 루카 22,14-23,56 |
| 화 답 송 |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 | | |
|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 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 | | |
| 영 성 체 송 |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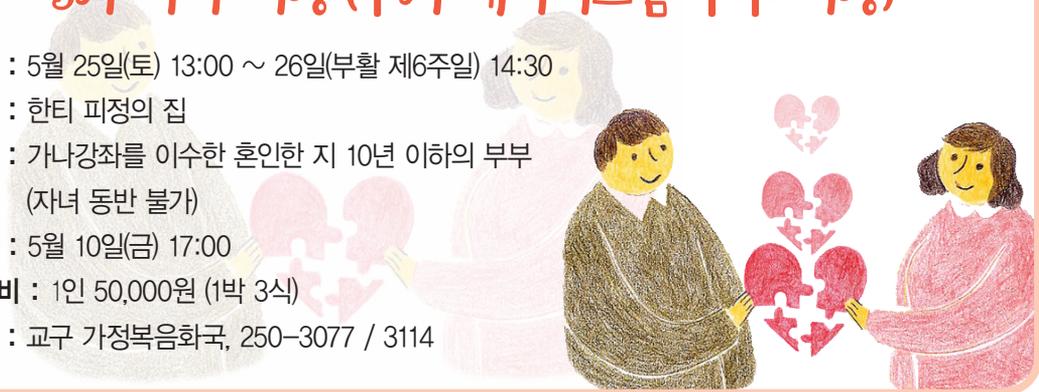


4.8(월) |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10주년 감사미사
 4.9(화) | 가톨릭 경제인회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성모상 봉헌 후원금 전달

4.8(월) |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10주년 감사미사
 4.11(목) | 하나원 교육생 가정문화체험 환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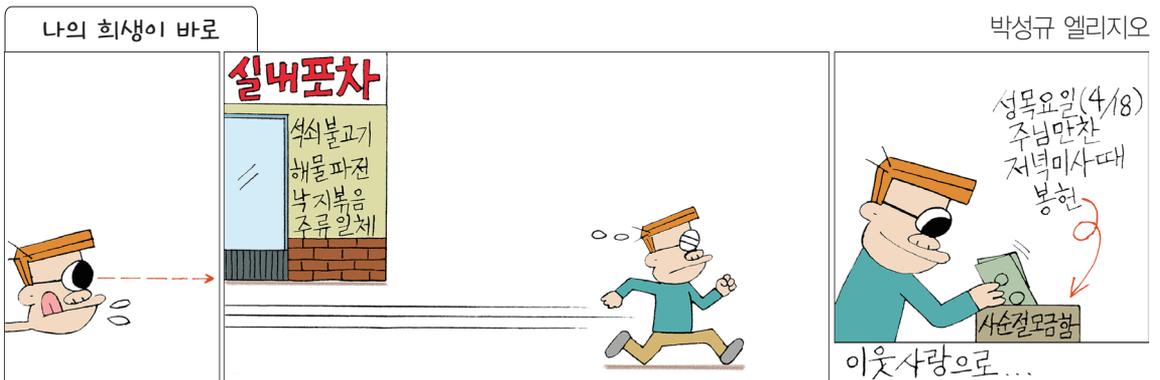
5차 가나 피자 (수지 에니어그램 부부 피자)

일시 : 5월 25일(토) 13:00 ~ 26일(부활 제6주일) 14:30
 장소 : 한티 피자의 집
 대상 : 가나강좌를 이수한 혼인한 지 10년 이하의 부부 (자녀 동반 불가)
 마감 : 5월 10일(금) 17:00
 신청비 : 1인 50,000원 (1박 3식)
 문의 :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 3114



유사 종교(사이비) 피해 사례 제보 받습니다!

유사 종교(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유사 종교 피해 사례를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전화: 교구 사목국 유사종교담당, 250-3123



미사

| | | | |
|----------------|----------------------|-----------------|--------------------------|
|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 4월 15일(월) 10:30 범어성당 |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4월 15일(월) 11:00 죽도성당 |
|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4월 15일(월) 11:00 계산성당 | 구미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 4월 17일(수) 19:00 신령성당 교리실 |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4.20(토) 14:00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010)3800-1579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일시: 4.16(화) 14:00~17(수) 18:00

장소: 효령하늘집

문의: 이곡성당, (054)382-0091

청년 부활 전례 피정

일시: 4.19(금) 16:00~21(일) 13:00

장소: 툇정포교베네딕도 대구수녀원

대상: 35세 이하 미혼 청년 누구나

문의: (010)9890-3431

엠마오 피정

일시: 4.26(금) 18:00~28(일) 14:00

장소: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안동 본원

주제: 너 나를 사랑하느냐?(요한 21,15)

대상: 하느님을 갈망하는 젊은 미혼 여성

문의: 정막달레나 수녀, (010)9861-6691

바틀로교육센터 첫영성체 가족 피정

일시: 5.4(2차), 5.25(5차), 6.1(7차),

6.2(8차), 6.8(9차)

신청: 각 차수 선착순 20가족(본당별)

문의: 783-9817 / (010)9868-9817

교육 | 모집 | 기타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19_2차)

일시: 4.26(금)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테레사홀 / 문의: 650-4910

주제: 무릎 관절염의 이해와 치료

강사: 정형외과 최원기 교수

가정의 달 2박 3일 가족 캠프

일시: 5.4(토) 15:00~6(월) 15:00

장소: 평화계곡피정집 / 마감: 4.30(화)

대상: 친구, 가족 단위 신청

신청: (010)3422-7587

33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출발: 6.22(토) / 7.20(토)

설명회: 4.20(토) 14:00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 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소보동지 엠마우스 가자

일시: 5.6(월) 10:00~16:00

장소: 소보동지(군위) / 회비: 3만원

대상: 가족, 친구, 누구나

신청: (010)8522-0260

제15차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교육

일시: 5.22(수)~23(목) 9:00~17:00

장소: 대구가톨릭대병원 3층 테레사홀

마감: 5.15(수) / 2만원(중식, 교재)

대구은행 248-05-000016-5

문의: 650-2642 / 650-3431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일시: 5.21(화) 이스라엘

경비: 360만원(8박 9일)

일시: 6.2(일) 터키, 그리스

경비: 395만원(12박 13일)

문의: 428-5004 / www.cttour.org

고령성가의집(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고령 쌍림면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1인 1실 사용

대상: 65세 이상 일상생활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문의: (054)954-1824 / (010)2362-7044

프란치스코와 함께 청년 해외 성지순례

일시: 8.9(금)~19(월) 10박 11일

장소: 로마~피렌체~아씨시~라베르나 외

주최: 아씨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문의: 전베로니카 수녀, (010)5313-0241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일 1회, 4박 5일 / 64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지도: 송진욱 신부 / 주관: 가고시마교구

문의: (010)3645-9028

미국가톨릭사립학교 9월 정규입학 모집

기간: 장·단기 / 대상: 초5~중3

주최: 그리스도의레지오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 문의: (02)2258-8983

http://oakinternational.co.kr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골프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홀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아네스)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이שראל, 성모발현지, 프랑수 순례

터키/그리스 성지순례 모객중

☎ 053-427-7090

안상덕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일월, 한솔, 한일매트

게르마늄 온수매트

소금좌욕기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T.053)604-3300

대구 북구 유흥단지로 45 전자관 1층 239호

초음파 백내장, 노안교정 수술

이중화 안과

원장 전문의 이중화 (루 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외래교수

반야월 저탄장입구 안심1동 새마을금고 옆

☎ 053)964-2445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 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뢰박사/전문의를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프롤로 재생 주사,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를 원장 정순우(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종홍(크리산토) 몬시뇰
2015년 4월 19일

행사 | 모임

2019년 제5회 'Concert for Mom'
부모와 자녀의 대화법 및 나를 아는
감정공부 특강과 토크 콘서트
일시: 4.27(토) 10:00 / 참가비: 1만원
장소: 교구청 별관 4회합실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3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4.15(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문의: (010)2501-1543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미사

일시: 4.16(화), 성모당
18:30 묵주기도, 19:00 특강, 20:00 미사
특강: 김태일 교수
주례: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250-3163

교육 | 모집

4월 가나 강좌

일시: 4.21(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신청)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선교교육의 날(매달 2, 3, 4주 월)

일시: 4.15, 22(월) 11:00~14:00
장소: 제1대리구청 강당
지도: 이창수(야고보) 신부
대상: 선교위원, 선교에 관심 있는 분
문의: 선교센터, 781-6100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모집
논문석사과정 / 교과석사과정(선택)
원서접수: 4.22(월)~5.7(화)
문의: 남산동캠퍼스, 660-5111
<http://dept.cu.ac.kr/user/theology>

2019 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4.22(월)~5.9(목)
모집: 일반, 교육, 특수 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 850-3508(교육)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일시: 매주 금 10:00~11:00
장소: 1대리구청 강당(계산성당 내)
강사: 4월 최성욱(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관덕정 국내 성지순례
일시: 5.16(목) / 5.19(일)
장소: 수원교구 남한산성성지
비용: 3만원(중식 포함)
신청: 4.17(수)부터 선착순
문의: 관덕정, 254-0151

가톨릭신학원 해외성지순례
일시: 7.2(화)~13(토) 11박 12일

장소: 파리 및 남프랑스 일대
지도: 광종식 신부(대신학원 원장)
비용: 490만원
문의: 대가대 가톨릭신학원, 660-5105

종독자 가족 상담 및 기도 모임
장소: 샬트르성바로수녀회 중독 상담실
내용: 개인·부부 상담, 영적 회복 프로그램
대상: 알콜·도박·인터넷 등 모든 종독자 가족
문의: (010)3996-7050

가톨릭문화관 천사주일학교 모집
일시: 매주 토 14:50~17:00
장소: 성토마스성당(교대역 3번 출구)
학생: 발달장애우(연령제한 없음)
교사·봉사자: 신자 누구나
문의: (010)3131-7566 / (010)9585-3583

채용 | 안내

범어대성전 바흐 마태 수난곡 연주
관계로 시편 성가 연수는 없습니다.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황성애, 이승훈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2019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9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못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능협방향 20m)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원룸,투룸 **용달이사**
환의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구 313-2484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SINCE 1975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덕두, 이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유전치안센터 옆 T. 425-5919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 의수술(소피아), 홍정흠(대전안드레아)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희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센, 장효선 데보라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냉·난방기
김원(토마스) 010-5623-9001